



**오승환,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 달성** 지난 6일 오후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2023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9회6으로 승리한 삼성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를 달성한 뒤 포수 강민호와 포옹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상벌위 참석

2023 WBC 기간 음주 논란... "죄송, 결과 수용"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기간 음주 사실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광현(SSG 랜더스), 이용찬(NC 다이노스), 정철원(두산 베어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광현과 이용찬, 정철원은 직접 소명을 위해 이날 상벌위에 참석했다. 김광현은 "잘 소명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이용찬도 "잘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정철원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약 50분뒤 이들은 소명을 마치고 차례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김광현은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며 "상벌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겠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이용찬도 "경위서 진술대로, 사

실대로 이야기하겠다. 결과를 기다리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원도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히 소명했다. 경위서대로 이야기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상벌위는 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열린 2023 WBC에 야구대표팀으로 출전한 이들은 지난달 말 한 유튜브 채널의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채널은 WBC 대회 기간 대표팀 일부 선수가 유흥업소에서 음주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매체는 선수들이 경기 전날에도 술을 마셨다고 전했다. 이에 KBO는 지난달 31일 해당 선수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WBC 기간 동안 경기 전날 밤 스낵배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이동일인 3월7일과 휴식인 전날인 3월10일에 해당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알렸다.

## U-20 월드컵 2회연속 4강 김은중호 포상 주목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김은중호가 2년 연속 4강에 올라 우승까지 넘보면서 포상 여부도 주목된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5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FIFA U-20 월드컵 8강전서 나이지리아와 연장 접전 끝에 1-0 승리했다.

전·후반 90분을 득점 없이 비긴 뒤 연장 전반 5분 최석현(단국대)의 헤딩 결승골로 웃었다.

이로써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4강에 올랐다.

한국 남자 축구가 FIFA 주관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건 1983년과 2019년 이 대회, 2002년 한일월드컵,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5번째다.

이 중 최고 성적은 2019년 U-20 월드컵 준우승이다.

이번에도 4강에 오른 한국은 이탈리아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이 같은 성과에 향후 포상금을 받을지도 관

### 2019년 준우승 때는 2000여만원 균등 지급 "최종 성적 나온 뒤 포상금 여부·규모 결정될 듯"



김은중호, U-20 월드컵서 2회 연속 4강 진출.

심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아직 포상금에 대해 논의된 건 없다"며 "최종 성적이 결정된 뒤에 포상금 여부

와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준우승한 2019년 대회 때는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이 기부한 특별 찬조금 10억원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다. 선수단과 코치진에 특별 포상금 6억원을 줬고, U-20 대표팀 선수를 배출한 38개 국내 중·고교에는 4억원의 육성 격려금이 지원됐다.

준우승한 U-20 선수 21명에게는 각각 2000만원 인박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김은중호가 이탈리아를 넘어 결승에 오른다면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포상금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포상금이 출전 시간과 기여도 등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이 아닌 '균등 지급'으로 배분된 건 U-20 월드컵 8강에 올랐던 2009년 이집트 대회와 2013년 터키 대회 때 선수들에게 균일하게 지급했던 전례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성인 대표팀의 경우에도 4강에 올랐던 2002 한일월드컵 때 선수들에게 포상금 1억원을 똑같이 지급했다.

연별별 월드컵은 성인 월드컵과 달리 FIFA에서 상업성을 배제해 별도로 배당받는 상금은 없는 상황이다. /뉴스시스

### 황인범, 올림피아코스 팬 선정 2022~2023시즌 MVP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이 소속팀 그리스 프로축구 올림피아코스 팬들이 뽑은 2022~2023시즌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됐다.

올림피아코스 팬 모임인 게이트7 인터내셔널은 6일(한국시간) 자체 팬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황인범이 62%의 압도적인 지지로 2022~2023 시즌 MVP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황인범은 단순히 뛰어난 기록 때문에 MVP가 된 게 아니다. 그는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했고, 우승 타이틀을 놓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등 팬들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올림피아코스와 3년 계약한 황인범은 첫 시즌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

### 현대차 월드랠리팀, WRC 이탈리아 랠리 '첫 우승' 쾌거

역대 이탈리아 랠리서 여섯번째 우승팀



현대차 월드랠리팀, WRC 이탈리아 랠리 첫 우승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2023 월드랠리 챔피언십(WRC)' 이탈리아 랠리에서 올해 첫 승을 거뒀다. 현대차는 1~4일(현지시간) 이탈리

아 세르테나에서 열린 WRC의 시즌 여섯 번째 대회에서 현대 월드랠리팀 소속 테리예리 누빌이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i20 N Rally1 하이브리드 경주차로 출전한 누빌은 3시간40분14초 기록으로 우승을 거뒀다.

이로써 현대차는 역대 이탈리아 랠리에서 총 6번 우승 신화를 달성했다.

현대 월드랠리팀 소속 에사페카 라피오 2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 현대 월드랠리팀은 총 43점을 얻으며 제조사 부문 2위를 기록했다. 선두인 토요타팀과 격차는 23점이었다.

WRC는 국제자동차연맹 FIA가 주관하는 세계 최정상급 모터스포츠대회로, 포장도로에서부터 비포장도로, 눈길 등에서 펼쳐지는 연간 경기 결과를 토대로 제조사와 드라이버 부문 챔피언을 결정한다.

지난해 대회부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반의 신규 기술이 적용돼 현대차는 i20 N의 1.6리터 4기통 엔진에 100kW급 전동모터를 탑재한 i20 N Rally1 하이브리드 경주차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총 13라운드로 구성되며 다음 경기는 22~25일 케냐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시스

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골판

# 골프 트레이닝 전문점

## 골프PT & 골프필라테스

제형교정 | 비거리 향상  
동작분석 | 운동재활  
부상방지 | 재활트레이닝  
필드레슨 | 스윙체크 및 기본기

트레이닝 경력 13년  
대학교 겸임교수 출강 경력 다수  
(운동역학·트레이닝법 등)  
KPGA·KLPGA 프로 트레이닝  
TPI전문가 김용규 트레이너

#광주 선수트레이닝 #광주트레이닝센터 #선수트레이닝 #골프트레이닝

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골프FIT

010-7773-6661

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 AM ~ 21:00 PM  
※ 주말은 예약필수

